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회장: 우리 학교 축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축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았다는 점이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축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하겠습니다. 먼저 원인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부장: 가장 큰 원인은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것입니다. 축제를 한 달 앞두고 기획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동아리별 축제 계획서를 받은 후에 장소 협의만 한 번 했고, 공연 섭외, 홍보, 물품 준비 등을 한꺼번에 급히 추진하느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총무부장: 동아리들이 수익 사업에만 치중한 것도 프로그램을 다양하지 못하게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수익금 전액을 동아리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다 보니 대부분의 동아리가 먹거리 판매나 게임 등의 수익성 프로그램에 치중했습니다.

학생회장: 축제 준비 기간의 부족과 동아리들이 수익 사업에만 치중했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문화부장: 우선 충분한 축제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이 가능합니다. 축제 3개월 전부터 공연팀과 전시팀 등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꾸려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총무부장: 패션쇼, 창작 가요제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기획하려면 그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익 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별도의 판매 행사팀을 신설하여 관리했으면 합니다.

학생회장: 판매 행사팀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부장: 판매 행사팀에 수익 사업을 신청해서 승인 받은 동아리들만 알뜰 장터, 먹거리 판매, 게임 마당 등을 운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수익금 용도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전액 동아리 활동비로만 쓸 수 있게 하는 것보다 일부는 동아리 활동비, 일부는 이웃 돕기 성금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부장: ([가]) 그러므로 동아리들이 수익 사업 신청을 할 때 판매 수익금 전액을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총무부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렇게 하면 축제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유도할 수 있고 기부 문화도 조성할 수 있어서 더 뜻깊은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학생회장: 축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획팀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방안과, 수익 사업은 판매 행사팀의 승인을 거친 동아리들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 전액을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는 오늘 마련된 방안을 시행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1. '학생회장'의 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 ② 토의 참여자들이 논의해야 할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토의 결과를 정리한 후 다음 토의의 안건을 예고하고 있다.
- ④ 토의 참여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있다.
- ⑤ 토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2. 위 토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회장'은 학교 축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을 공동의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 ② '문화부장'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할 기간이 짧았던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총무부장'은 동아리들이 승인 없이 수익금 전액을 동아리 활동비로 사용했던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문화부장'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축제 기획팀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⑤ '총무부장'은 수익 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한 판매 행사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 토의의 흐름과 <보기>를 참고할 때, [가]에 들어갈 발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토의에서 상대의 의견을 비판할 때는 발화 맥락을 고려하여 협력적인 의사 결정을 목표로 발언해야 한다. 이때 비판은 상대 의견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한 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 ① 기부 활동을 통해 축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부 활동이 동아리 고유 활동을 활성화할 지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 ② 판매 행사팀에서 동아리의 신청을 받아 수익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동아리들끼리 의견을 조율할 수 없게 됩니다.
- ③ 판매 행사팀에서 활동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의견 조율을 위해 판매 행사팀을 두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 ④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만 기부하게 되면 동아리들은 여전히 활동비를 확보하려고 수익 사업에 치중할 우려가 있습니다.
- ⑤ 그것이 프로그램 다양화에 도움을 줄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수익금을 활동비와 기부금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축제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5]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의 웃는 얼굴 그림을 가리키며) 저는 이와 같은 이모티콘을 소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티콘’은 ‘감정(emotion)’과 ‘아이콘(icon)’의 합성어로, 감정을 나타내는 기호를 말합니다. 저는 국립국어원에서 순화어로 제시한 ‘그림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그림말을 몇 번 정도 사용하세요? (대답을 듣고) 매우 자주 쓰시네요. 통계에 따르면 문자 대화가 일곱 번 정도 오갈 때마다 한 번씩 그림말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림말을 왜 쓸까요? 그래프를 보십시오. 고등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감정 전달을 위해서’가 62%였습니다. 그림말을 쓰면 글로 쓸 때보다 시간을 줄이면서 감정이나 생각을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말 사용이 긍정적인 면만 있을까요? (화면에서 특이한 이미지의 그림말을 가리키며) 이 그림말은 언제 쓸까요? (반응을 보고) 대답이 다양하네요. 이렇게 생소한 그림말을 사용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그림말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는군요. 그 일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그림말을 사용하면 오히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림말에 지나치게 의존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면 언어 표현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연했던 적 있으시죠? 저는 제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쓰려 할 때마다 매번 끄끙댁니다. 전문가들은 생각과 감정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려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고력과 언어 표현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손쉽다는 이유로 그림말에만 의존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능력 향상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힘을 주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그림말도 지나치게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그림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보내세요.

4. 다음은 학생의 발표 계획이다.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 화제를 제시하자.
- ②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그림말 사용의 문제점을 언급하자.
- ③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유도해 청중과 상호 작용하자.
- ④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그림말 사용자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자.
- ⑤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환기하여 그림말 사용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자.

5.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후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학생 1: 신문 기사를 통해, 어느 모바일 대화방의 그림말이 500여 종에 이르다 보니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사람에 따라 그림말의 의미를 제각각 이해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해.
- 학생 2: 제시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통계 자료 가 믿을 만한지 의문이 들어.
- 학생 3: 그림말만으로 쉽게 감정을 표현하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가 아닐까 하고 의문을 품은 적이 있어.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어.
- 학생 4: 문자로 대화를 할 때 그림말을 사용하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고 감정을 즉각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는데, 발표자가 너무 부정적인 견해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 학생 5: 발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조에 강세를 두어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가 쉬웠어.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관련지어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며 들었다.
- ② 학생 2는 발표에 사용한 자료의 신뢰성을 점검하며 들었다.
-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을 수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며 들었다.
- ④ 학생 4는 발표 내용의 공정성을 평가하며 들었다.
- ⑤ 학생 5는 발표에서 반언어적 표현의 사용 효과에 주목하며 들었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주말에 친구들과 공원으로 야외 활동을 하러 나갔다가 기상 정보에서 ‘초미세먼지 나쁨’이라는 표시를 보게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초미세먼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여 친구들에게 초미세먼지에 관한 정보와 그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한 글을 작성하였다.

○ **학생의 초고**

요즘은 안심하고 야외 활동을 즐기기가 어려워졌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이 부쩍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공기의 질은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어떤 것이며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초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방안을 알고 생활 속에서 그 방안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초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먼지를 말한다. 입자

가 큰 일반적인 먼지는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만 초미세먼지는 걸러지지 않는다.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해 혈관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매우 크다. 초미세먼지는 각종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온 것들도 있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것들도 많다. 화석 연료를 사용해 배출된 공장 매연이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국내 발생원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매연을 통한 오염 물질의 배출 총량을 규제하고 대체 에너지원 개발을 장려하는 등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 과도한 난방을 자제하고, ㉠ 주·정차 시 불필요하게 자동차 시동을 걸어 놓는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생활 속에서 초미세먼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일 알려 주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상 예보를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특히 초미세먼지가 나쁨 단계 이상일 때는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할 때는 특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항산화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항산화 식품으로는 과일과 채소가 대표적이다.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깨끗한 공기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시작해 보자.

6. '작문 상황'과 '학생의 초고'를 고려할 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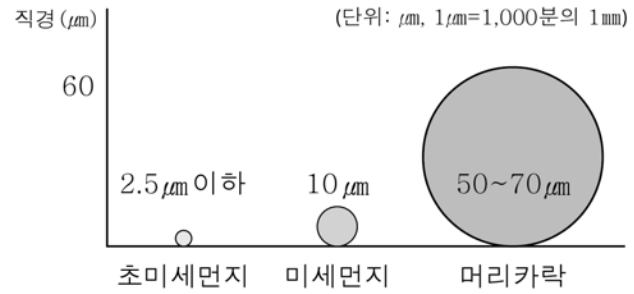
- < 보 기 >
- ㉠ 초미세먼지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에서 글감을 구했다.
 - ㉡ 초미세먼지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유추의 방식을 사용한다.
 - ㉢ 초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언급한다.
 - ㉣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비교하여 타당성을 분석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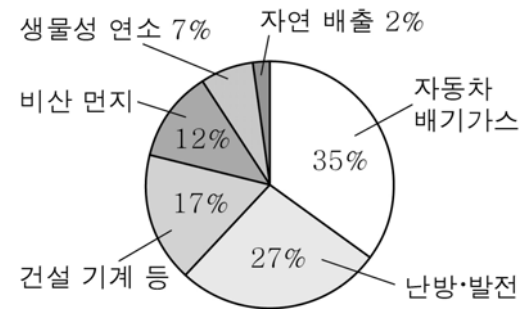
7. <보기>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수정·보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초미세먼지 관련 자료

1. 초미세먼지의 상대적 크기 비교



2. 초미세먼지 국내 발생 원인



(나) 신문 기사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이들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의 해외 도시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다) 전문가 인터뷰

초미세먼지는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중금속이나 이온 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초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안구 질환 등의 각종 질병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① (가)-1을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 언급된 초미세먼지의 개념을 보완한다.
- ② (가)-2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 제시된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국내 발생원'에 관한 정보를 추가한다.
- ③ (나)를 활용하여, 첫째 단락에 언급된 초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구체화한다.
- ④ (다)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 언급된 '각종 질병'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넷째 단락에 제시된 초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안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

8. ㉠에 참여해 사용할 문구를 <조건>에 맞게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ㄱ.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부각할 것.
 ㄴ. 자동차 공회전을 멈출 것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을 것.
 ㄷ. 비유법을 사용할 것.

- ① 초미세먼지는 우리 몸과 환경을 해치는 날 선 창 자동차 공회전을 멈춘 당신은 초미세먼지를 막는 방패
- ②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초미세먼지 없는 세상 자동차 공회전을 멈추는 것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 ③ 무서운 초미세먼지가 나오는 자동차 공회전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
- ④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의 위험 당신의 자동차 공회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 ⑤ 불필요하게 걸려 있는 자동차 시동을 끄는 당신의 손 초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우산을 펴는 손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알 림 ◆

지난 3월 4일 우리 학교에서는 2016학년도 학생자치법정 운영과 관련하여 대의원 회의를 ㉠ 개최되어졌습니다. 회의에서는 학생자치법정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알려 드리고 선발 관련 내용을 공지합니다.

첫째,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의견을 수용하여, 학생자치법정의 구성원은 학생회 임원이 ㉡ 함께 맡아 겸임하지 않고 별도로 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리 학교 학생회 임원은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되었습니다. 둘째, 학생자치법정에서는 경미한 교칙 위반으로 인하여 벌점이 누적된 학생의 경우,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의 의견을 충분히 살펴 해당 ㉣ 학생에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자치법정에서 벌점을 감경해 주더라도 그에 따른 교육 조치를 ㉤ 병치하여 학생들이 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학년도 학생자치법정 구성과 관련한 안내 사항입니다.

- 안내 사항 -

- 모집 인원: 판사, 검사, 변호사, 서기 각 3명
- 자격 조건: 재학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2학년 학생
- 서류 접수: 응모 신청서와 자기 소개서를 3월 23일 (수)까지 학생회실로 제출
- 면접 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학생자치법정은 자치 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학생회장 ○○○

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필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독자의 비판적 의견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문은 소통을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② 안내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문은 글의 목적을 고려해 내용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표현 행위이다.
- ③ 필자가 속한 집단의 개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문은 친교적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표현 행위이다.
- ④ 필자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이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작문은 현실에 대한 주관적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 행위이다.
- ⑤ 다양한 청각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문은 내용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려하는 표현 행위이다.

10. ㉠~㉤을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이중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하였으므로 '개최되어졌습니다'로 수정한다.
- ② ㉡은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므로 '함께 맡아'를 삭제한다.
- ③ ㉢은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학생에게'로 수정한다.
- ⑤ ㉤은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병행'으로 수정한다.

11. <보기>에 따라 표준 발음에 대하여 학습하였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그 발음이 바르지 못한 것은?

< 보 기 >

-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함. 그리고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함. ㉠
- 받침 'ㄱ, ㄷ, ㅂ'은 'ㄴ, ㅁ' 등의 비음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함. ㉡
- 받침 'ㄱ,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함. ... ㉢
-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함. ㉣

	예	적용 내용	발음
①	색연필	㉠, ㉡	[생년필]
②	물약	㉠, ㉢	[물낙]
③	잡는다	㉡	[잡는다]
④	강릉	㉢	[강능]
⑤	물난리	㉣	[물탈리]

12. <보기>의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선생님, ‘젊음’은 사전의 표제어인데, 왜 ‘늙음’은 사전의 표제어가 아닌가요?
 선생님: 사전의 표제어인 ‘젊음’은 파생 명사입니다. 반면에 ‘늙음’은 파생 명사가 아니라 동사 ‘늙다’의 명사형입니다. ‘늙음’은 ‘늙다’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표제어가 아닙니다.
 학생: 둘 다 ‘-음’으로 끝나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선생님: 사전의 표제어 ‘젊음’은 어근 ‘젊-’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늙음’은 어간 ‘늙-’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말로 문장에 쓰이면 서술하는 기능이 있고 부사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말들 중에서 사전의 표제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 ① 그녀의 수줍음은 늘 티가 났다.
- ② 나는 가진 돈이 전혀 없음을 깨달았다.
- ③ 그녀가 많이 먹음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 ④ 그는 경력이 남들보다 많음을 자랑스러워했다.
- ⑤ 내가 늘 빨리 걸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13. <보기>의 사례를 통해 ‘의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려고’의 쓰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도서관에 가려고 철호가 집을 나섰다.
 *영희가 도서관에 가려고 철호가 집을 나섰다.
 ㄴ. 철호가 도서관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도서관에 가려고 철호가 집을 나섰다.
 철호가 집을 나섰다, 도서관에 가려고.
 ㄷ. 철호야,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가니?/*가라./*가자.
 ㄹ. 할머니께서는 병원에 가시려고/*가셨으려고/*가시겠으려고 버스를 타셨다.
 ㅁ. 할머니께서는 운동을 하려고 공원에 가셨다.
 할머니께서는 *건강하려고 공원에 가셨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을 보니, ‘-(으)려고’로 연결된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르면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 되는 경우가 있군.
- ② ㄴ을 보니, ‘-(으)려고’가 포함된 절은 문장에서의 위치 이동이 가능하군.
- ③ ㄷ을 보니, ‘-(으)려고’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이어지면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 될 수 있군.
- ④ ㄹ을 보니, ‘-(으)려고’는 선어말 어미와 결합하지 못하는군.
- ⑤ ㅁ을 보니, ‘-(으)려고’는 동사 어간과는 결합하지만 형용사 어간과는 결합하지 않는군.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 료 >

우연 ㉠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우연의 일치』
 「반」 필연01.

우연-적 ㉡ 아무런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나는. 또는 그런 것.
 『우연적 만남/우연적 사건』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

우연-하다 ㉢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다.
 『친구를 우연하게 만났다.』

우연-히 ㉣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게.
 『동생의 비상금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 ① ‘우연’의 뜻풀이와 반의어를 보니, ‘우연적’의 반의어로 ‘필연적’이 존재할 수 있겠군.
- ② ‘우연적’의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니, ‘그들의 만남은 우연적이었다.’의 ‘우연적’은 관형사에 해당하겠군.
- ③ ‘우연하다’의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니, ‘우연하다’의 용례로 ‘우연한 계기’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우연’과 ‘우연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우연하다’는 ‘우연’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 ⑤ ‘우연하다’와 ‘우연히’의 뜻풀이 및 용례를 보니, ‘친구를 우연하게 만났다.’의 ‘우연하게’는 ‘우연히’로 교체하여 쓸 수 있겠군.

15. <보기>를 고친 이유에 따라 짝지은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 지원이의 꿈은 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
 → 지원이의 꿈은 국어 교사가 되는 것이다.
 (나) 인간은 한편으로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하면서 살아왔다.
 → 인간은 한편으로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을 이용하면서 살아왔다.
 (다) 형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고 싶어 한다.
 → 어떤 사람이든지 형을 만나고 싶어 한다.

	문장의 중의성	주어와 서술어 간의 불호응		필요한
		불호응	문장 성분	누락
①	(가)	(나)	(다)	(다)
②	(나)	(가)	(다)	(다)
③	(나)	(다)	(가)	(가)
④	(다)	(가)	(나)	(나)
⑤	(다)	(나)	(가)	(가)

[16~1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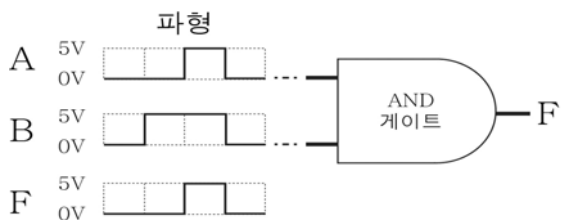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장치는 1과 0밖에 구분하지 못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 숫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왔는지(1), 오지 않았는지(0)의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다. 신호 여부는 두 개의 전압 레벨, 예를 들어 5V와 0V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즉 전압 레벨이 변화하는 것을 2진수로 처리하여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다. 디지털 회로의 기본 요소는 논리 게이트인데, 논리 게이트는 하나 이상의 입력 값에 대한 논리 연산을 수행하여 출력 값을 얻는다.

디지털 회로는 출력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 논리 회로와 순차 논리 회로로 나눌 수 있다. 조합 논리 회로는 현재의 입력 값들만 이용하여 출력 값을 결정한다. 즉 회로를 구성하는 논리 게이트들이 입력 신호들을 받는 즉시 그것들을 조합하여 출력 신호를 발생시킨다. 반면 순차 논리 회로는 과거의 출력 값이 현재의 출력에 영향을 미친다. 출력 값이 그 시점의 입력 값뿐만 아니라 이전 상태의 출력

[A] 값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이다. 가령 디지털 장치에서 수를 셀 때, 이전 상태의 출력 값과 현재의 값을 논리 연산하여 출력하므로 다음 상태로 변화할 때까지 현 상태를 기억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순차 논리 회로는 조합 논리 회로와 달리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전 상태의 출력 값은 다음 단계의 순차 논리 회로 동작을 위해 피드백 경로를 통해 다시 순차 논리 회로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된다.

조합 논리 회로이든 순차 논리 회로이든 디지털 회로의 설계는 다양한 논리 게이트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논리 게이트로는 NOT 게이트, AND 게이트, OR 게이트가 있다. NOT 게이트는 보통 인버터라 부르며 출력 값이 입력 값과 반대가 되도록 변환한다. 예를 들어 입력 값이 0이면 출력 값은 1이고 입력 값이 1이면 출력 값은 0이 된다. 따라서 입력 가능한 조합은 1과 0, 두 개뿐이다. AND 게이트는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오는 입력 값이 모두 1일 때만 출력 값이 1이고, 만일 한 개라도 0이면 출력 값은 0이 된다. OR 게이트는 입력 값이 어느 하나라도 1이면 출력 값이 1이 되고, 입력 값이 모두 0일 때만 출력 값이 0이 된다. 논리 게이트들의 입력 가능한 조합의 수는 2의 거듭제곱을 따른다. 즉 입력 단자가 2개면 입력 가능 조합은 4개, 입력 단자가 3개면 입력 가능 조합은 8개가 된다.

논리 게이트의 입력과 출력은 전기적 신호가 바뀌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아래 그림은 AND 게이트에 입력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어떤 출력 신호가 나오는지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파형이 각각의 입력 단자에 들어올 때, AND 게이트는 F와 같은 파형을 출력하게 된다. 여기서 파형이란 0과 1에 해당하는 전기적 신호(0V와 5V)가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표현한 것을 말한다. 다른 게이트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적 신호가 바뀌는 모습을 표현하여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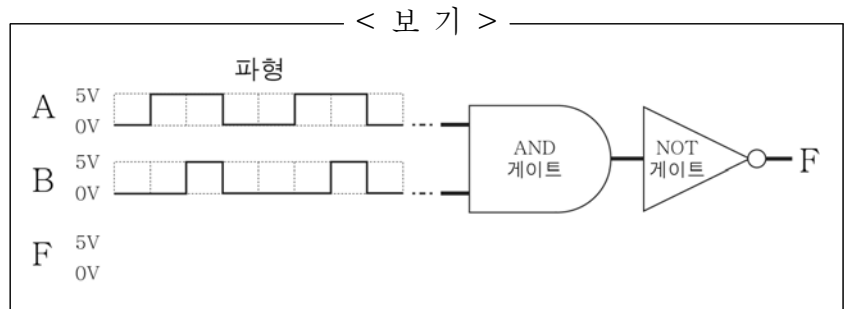
1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어떤 논리 게이트라도 출력 값은 0과 1, 둘 중 하나이다.
- ② 논리 게이트의 입력과 출력은 전기적 신호가 바뀌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다.
- ③ 어떤 논리 게이트에 n개의 입력 단자가 있으면 입력 가능한 조합의 수는 2ⁿ개이다.
- ④ NOT 게이트, AND 게이트, OR 게이트에서 입력 값이 모두 0이면 각각의 출력 값은 모두 0이다.
- ⑤ 조합 논리 회로와 순차 논리 회로는 둘 다 논리 게이트를 연결해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17. [A]로 보아 출력을 결정하는 방법이 다른 하나는?

- ① 자동차의 문이 열리면 경고음이 울리는 경우
- ② 현관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전등이 켜지는 경우
- ③ 사람이 다가가야만 움직이기 시작하는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 ④ 이용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운행되지 않는 놀이 기구의 경우
- ⑤ 은행에서 지폐를 세는 기계가 만 원권의 개수를 세어 총액을 나타내는 경우

18.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서 출력될 F의 파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F 5V 0V [Timing diagram showing a high pulse followed by a low pulse]
- ② F 5V 0V [Timing diagram showing a low pulse followed by a high pulse]
- ③ F 5V 0V [Timing diagram showing a high pulse followed by a low pulse]
- ④ F 5V 0V [Timing diagram showing a low pulse followed by a high pulse]
- ⑤ F 5V 0V [Timing diagram showing a high pulse followed by a low pulse]

[19~2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자의 『도덕경』을 ㉔ 관통하고 있는 사고방식은 “차원 높은 덕은 덕스럽지 않으므로 덕이 있고, 차원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므로 덕이 없다.”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말에서 노자는 ‘덕스럽지 않음’과 ‘덕이 있음’, ‘덕을 잃지 않음’과 ‘덕이 없음’을 함께 서술해 상반된 것이 공존한다는 생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명(名)’에 대한 노자의 견해와 맞닿아 있다.

노자는 하나의 ‘명(A)’이 있으면 반드시 ‘그와 반대되는 것(~A)’이 있으며, 이러한 공존이 세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명’은 대상에 부여된 것으로 존재나 사태의 한 측면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있음과 없음이 서로 생겨나고, 길고 짧음이 서로 형체를 갖추고, 높고 낮음이 서로 기울어지고, 앞과 뒤가 서로 따른다.”라는 노자의 말은 A와 ~A가 같이 존재하는 세계의 모습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노자에 따르면, A와 ~A가 공존하는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A는 A이다.’와 같은 사유에 ㉕ 매몰되어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仁), 의(義), 예(禮), 충(忠), 효(孝) 등을 지향함으로써 사회의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 유가(儒家)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 유가에서의 인, 의, 예, 충, 효 등과 같은 ‘명’의 강화는 그 반대적 측면을 동반하게 되어 결국 사회의 혼란이 ㉖ 가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노자는 “법령이 더욱 엄하게 되면 도적도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였다. 도적을 제거하기 위해 법령을 강화하면 도적이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법이 엄격하게 시행되어도 범죄자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교활한 꾀와 탐욕으로 그 법을 피해 가는 방법을 생각해 내는 도적들이 점차 생기고, 급기야는 그 법을 피해 가는 도적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 노자의 주장이다. 이러한 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향해야만 하는 이상적 기준으로 ‘명’을 정해 놓고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사회 질서가 안정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명’에 관한 노자의 견해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한 갈등과 투쟁이 극심했던 사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면서 동시에 그 사회의 혼란을 ㉗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자는 당대 사회가 ‘명’으로 제시된 이념의 지향성과 배타성을 이용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가득 차 있다고 여겼다. 노자는 문명사회를 탐욕과 이기심 및 이를 정당화시켜 주는 이념의 산물로 보고, ㉘ 적은 사람들이 모여 욕심 없이 살아가는 소규모의 원시 공동체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자는 ‘명’으로 규정해 놓은 특정 체계나 기준 안으로 인간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인위적인 규정이 없는 열린 세계에서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평화로운 안정된 삶을 ㉙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다.

19.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덕경』에는 ‘상반된 것의 공존’에 관한 노자의 생각이 들어 있다.
- ② 노자는 법의 엄격한 시행이 오히려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③ 노자는 탐욕과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이념을 문명사회의 문제점으로 보았다.

- ④ 노자에 따르면, ‘A는 A이다.’와 같은 사유에 매몰된 사람은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 ⑤ 노자의 입장에서 ‘명’은 대상에 부여되어 그 대상이 지닌 상반된 속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20. 윗글의 ‘노자’와 <보기>의 ‘공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공자의 ‘정명론(正名論)’은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君君臣臣父父子子).”라는 말로 요약된다. 이와 같이 ‘A는 A답게 되어야 한다.’는 공자의 논리는 현실 속의 개체는 이상적인 개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변하는 이상적 기준인 ‘명(名)’에 부합해야만 한다는 논리이다. 공자는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마땅히 예(禮)를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자는 사회 구성원들이 예에 따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사회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 ① 노자는 공자와 달리 ‘명’이 불변하는 이상적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② 노자는 공자와 달리 ‘예’와 같은 이념이 실현되려면 이념을 지향해 초래되는 문제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공자는 노자와 달리 ‘예’에 의해 사회의 혼란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공자는 노자와 달리 사회 구성원들이 ‘명’에 부합하도록 마땅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노자와 공자 모두 사회의 혼란을 바로잡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다.

21. ㉗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을 통해 현실을 온전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② ‘명’의 강화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③ 상반된 것이 함께 존재한다는 생각이 규정에 의해 제한된다.
- ④ 이념의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운 개인의 이익 추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 ⑤ 특정 체계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로운 안정된 삶이 유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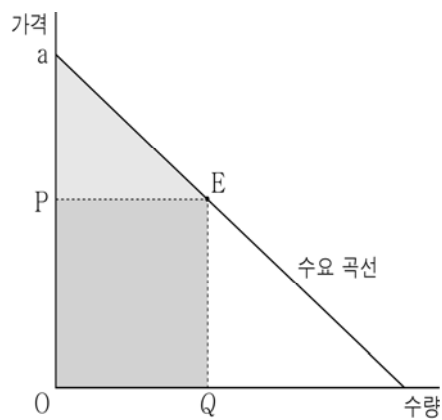
22. ㉘ ~ ㉙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㉘: 일정한 체계에 따라 서로 관련되어 있음.
- ② ㉙: 보이지 아니하게 파묻힘.
- ③ ㉖: 책임이나 부담 따위가 더 무거워짐.
- ④ ㉗: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림.
- ⑤ ㉘: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함.

[23~2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가 동일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를 ‘가격 차별’이라 한다. 가격 차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판매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장 지배력이란 판매자가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둘째, 시장이 분리 가능해야 한다. 즉, 상품의 판매 단위나 구매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시장 간에 상품의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한다. 만약 가격이 낮은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가격이 높은 시장에 되팔 수 있다면 매매 차익을 노리는 구매자들로 인해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격 차별은 ‘1급 가격 차별’, ‘2급 가격 차별’, ‘3급 가격 차별’로 나눌 수 있는데, 1급 가격 차별은 개별 구매자들의 선호도를 모두 알고 있어 구매자 별로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그림에서 가격 차별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판매자가 얻는 수입은 판매 가격(\overline{OP}) × 판매량(\overline{OQ})으로 사각형 OPEQ가 된다.



그러나 1급 가격 차별을 실시하면 각 구매자의 최대 지불 용의 가격인 수요 곡선을 따라 상품 가격을 결정하므로 총수입은 사다리꼴 OaEQ로 늘어나게 된다. ‘완전 가격 차별’이라고도 하는 1급 가격 차별은 판매자의 총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모든 구매자들의 선호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2급 가격 차별은 상품 수량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구간 가격 설정 방식’이라고도 하는 2급 가격 차별은 소량 구입을 하는 고객에게는 높은 가격을 매기고 대량 구입을 하는 고객에게는 가격을 낮추어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16개의 라면을 생산하여 1개, 5개, 10개 단위로 각각 1,000원, 4,700원, 8,000원에 파는 것이다.

[A] 3급 가격 차별은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기준으로 구매자를 두 개 이상의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각 그룹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가격 변동에 민감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그룹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가격 변동에 덜 민감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그룹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매긴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나 노인 그룹에 일반인보다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독점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생산량을 적게 하고 높은 가격을 매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지만 ㉠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면 생산량이 증대되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

* 최대 지불 용의 가격: 구매자가 상품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

23. 밑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 ① 가격 차별의 개념
- ② 가격 차별의 유형
- ③ 가격 차별의 성립 조건
- ④ 독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⑤ 상품 특성에 따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차이

2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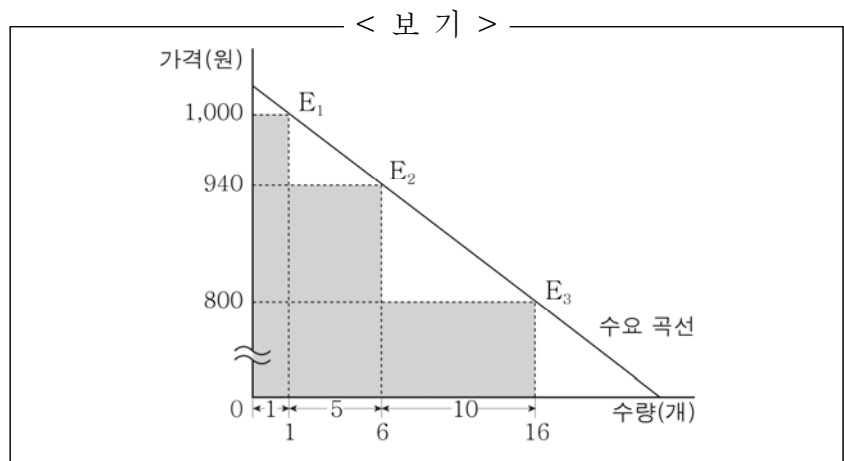
< 보 기 >

다음은 ○○사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의 기본 운임이다. 지하철의 수송 원가는 1,049원이다.

구분	어른	어린이
기본 운임(원/10km)	1,300	500

- ① 어른과 어린이로 시장을 분리하여 가격 차별을 하는군.
- ② 어린이 승차권을 어른 승차권으로 되팔 수 없도록 하겠군.
- ③ 수송 원가를 고려할 때 지하철 운임의 가격 차별은 완전 가격 차별에 해당하는군.
- ④ 지하철 요금의 변동에 따라 어른 그룹과 어린이 그룹은 수요의 민감도가 다를 수 있겠군.
- ⑤ 지하철 운영자는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임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겠군.

25. <보기>는 [A]의 사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밑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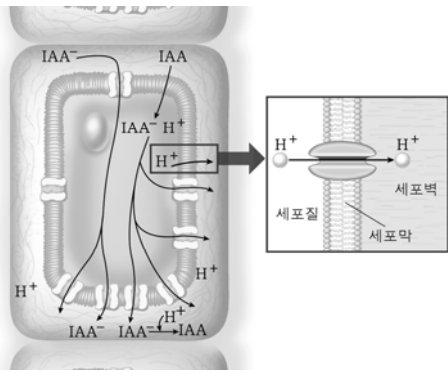
- ① 판매자의 총수입은 가격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결정할 때보다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결정할 때 더 감소한다.
- ② 판매자는 상품의 수량을 구간 별로 나누어 구매자들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한다.
- ③ 판매자는 가격을 차별하여 구입하는 수량이 많은 고객에게 가격을 낮추어 준다.
- ④ 판매자의 총수입은 상품 가격을 800원으로 단일하게 책정할 때보다 증가한다.
- ⑤ 판매자의 총수입은 $(1,000 \times 1) + (940 \times 5) + (800 \times 10)$ 의 면적에 해당한다.

26. ㉠처럼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추리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낮은 가격 때문에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던 상품의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다.
- ②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소비하려는 구매자들이 다른 시장을 통해 가격 차별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 ③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소비하려는 구매자들의 가격 부담이 줄어들지 않아 상품을 소비하지 못할 것이다.
- ④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소비했던 구매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
- ⑤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하지 않던 구매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27~3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찰스 다윈은 어린 식물이 빛의 방향으로 휘는 것을 보고 어린 식물의 일부 부위를 가리거나 절단한 후 햇빛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 이후에 보이센엔센은 식물이 특정 부분에서 빛을 인식하고, 그 부분에서 화학 물질이 줄기를 따라 뿌리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벤투는 이 화학 물질을 ‘옥신’이라고 이름 지었다.



식물은 분열 조직이 있는 줄기의 맨 윗부분에서 옥신을 만들고, 이 옥신이 뿌리 쪽으로 이동한다. 옥신은 주로 식물 세포를 신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옥신인 IAA는 이온화되지 않은 형태인 IAA와

이온화된 형태인 IAA⁻의 두 가지로 세포벽에 존재한다. 이온화되지 않은 옥신은 확산되어 세포질로 유입된 후 IAA⁻과 H⁺으로 이온화된다. 하지만 세포벽에 이온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옥신은 확산으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막에 있는 옥신 유입 수송체를 거쳐야만 세포질로 들어갈 수 있다.

세포질로 유입된 옥신은 세포막에 있는 H⁺ 펌프를 활성화한다. H⁺ 펌프가 활성화되면 세포질의 H⁺들은 H⁺ 펌프가 작용해 세포벽으로 수송된다. H⁺이 수송된 세포벽에서는 H⁺이 증가하여 pH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 영향으로 섬유소 분자 간의 결합을 끊어 주는 췌기 모양의 효소가 활성화된다. 이 췌기 모양의 효소가 세포벽에 있는 섬유소들의 연결을 느슨하게 하면 삼투 현상에 의해 세포질로 물이 유입된다. 물이 유입된 세포질은 압력이 높아지면서 팽창하기 때문에 식물 세포가 신장하게 된다.

세포질에 이온화된 형태로 있는 옥신이 뿌리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세포질 밖으로 옥신이 유출되어야 하는데, 이온화된 형태로는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때 세포막을 통과하는 통로로 PIN 단백질이 이용된다. PIN 단백질은 세포막의 좌우나 아래쪽에 위치하여 옥신이 이동하는 방향을 결정한다. 식물이 빛을 향해 휘어지는 굴광성은 옥신이 세포막 좌우에 위치하고 있는 PIN 단백질을 거쳐 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대체로 PIN 단백질은 세포막 아래쪽에 주로 ㉠ 퍼져 있는데, 이로 인해 옥신은 줄기에서 뿌리 쪽으로 이동하며 식물 세포의 신장을 촉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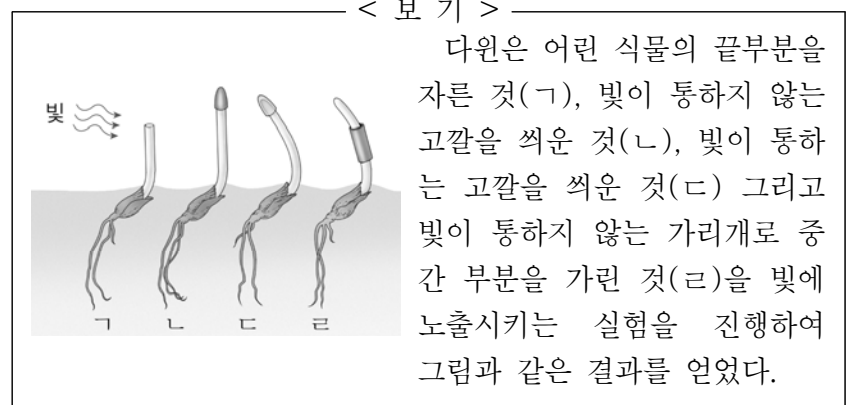
2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옥신이 식물 세포에 작용하는 원리를 과정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② 옥신의 구조가 빛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형태가 다른 옥신이 생성되는 원리를 조건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식물 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른 형태의 옥신이 이동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식물의 분열 조직을 형성하는 데에 옥신이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세포질의 옥신은 PIN 단백질을 통해 세포벽으로 유출된다.
- ② 세포질로 물이 유입되면 삼투 현상이 발생해 세포질의 압력이 높아진다.
- ③ 활성화된 췌기 모양의 효소는 세포벽에 있는 섬유소들의 연결을 느슨하게 한다.
- ④ H⁺ 펌프의 작용으로 세포질의 H⁺이 세포벽으로 이동해 세포벽의 pH가 감소된다.
- ⑤ 세포벽에 이온화된 형태로 있는 옥신은 옥신 유입 수송체를 통해 세포질로 유입된다.

29. <보기>는 다윈이 진행한 실험이다. 윗글을 고려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절단면에서는 옥신이 만들어지지 못하겠군.
- ② 가와 나 은 빛의 방향이 바뀌어도 휘어지지 않겠군.
- ③ 나 은 다 과 달리 고깔이 있는 위쪽으로 옥신이 이동하겠군.
- ④ 나 은 고깔을 그대로 둔 채 라의 가리개로 중간 부분을 씌워도 휘어지지 않겠군.
- ⑤ 다 과 라의 휘어진 부분에서는 빛의 반대 방향의 세포가 더 신장하겠군.

30. ㉠과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포하는데
- ② 배포하는데
- ③ 분포하는데
- ④ 살포하는데
- ⑤ 유포하는데

[31 ~ 3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날 저녁때 황 진사가 온 것을 보고, 숙부님이,
 “일제, 여기 젊고 돈 있는 색시가 있는데 장가 안 들라우?”
 하고 물어보았다.
 “아, 들면야 좋지만 선생도 아시다시피 천량*이 있어야지.”
 하는 그의 얼굴에는 완연히 희색이 넘쳤다.
 그의 얼굴에 희색이 넘침을 보신 숙모님은 돈이 없어도
 장가를 들 수 있다는 것과, 장가만 들게 되면 깨끗한 의복
 에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을 일러 주신즉,
 “아, 그림야 여복 좋았수, 규수 나인 몇 살이구…… 집안
 도 이름 있구…….”
 ㉠ 그는 연방 입이 벌어져 침을 흘리며 두 눈에 난데없는
 광채를 띠고 숙모님께로 대어드는 판이었다.
 “과부래야 이름 아깝지 뭐, 이제 나이 삼십밖에 안 된
 걸…….”
 숙모님도 신명이 나는 모양으로 이렇게 자랑삼아 말한즉,
 황 진사는 갑자기 낮빛이 핵 변해지며,
 “아 규, 규수가, 시방 말씀한 그 규수가, 과, 과부란 말씀
 유?”
 이렇게 물었다.
 “왜 그류.”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황 진사의 닫힌 입 가장자리에 미
 미한 경련이 일어나며, 힘없이 두 무릅팍 위에 놓인 그의
 두 손은 불불불 떨리고 있었다. ㉡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푹푹푹 하고 들리었다. 그는 조용히 고갯짓부터 좌우로
 돌렸다.
 “당장은 말씀유…… 흥, 과, 과부라니 당하지 않은 말씀
 을…….”
 그는 곧 호령이라도 내릴 듯이 누렇게 부은 두 볼이 꿈적
 꿈적하며 노기 띤 눈을 부라리곤 하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 “황후암(黃厚庵) 육대 직손이유.”
 하고 다시,
 “황후암 육대 직손이 그래 남의 가문에 출가했던 여자한
 테 장가들다니 당하기나 한 소리요…… 선생도 너무나 과
 도한 말씀이유.”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수감된 숙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황 진사를 우연히 만난다.

“이리 잠깐 오, 날 좀 보.”
 하고, 그는 나를 한쪽 구석에 불러 놓고 지극히 중대한 사실
 을 발견했노라고 한다. 나는 사정이 전과 다른 형편에 있던 터
 이라 혹시나 이런 데서 무슨 숙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알
 게 되나 하여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긴장한 낮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인데, 그는,
 “아, 내 조상께서도 모르고 지낸 윗대 조상을 근일에 와서
 상고했구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였다. ㉣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어리둥
 절해 있노라니,
 “왜 그루, 어디 편찮우?”
 한다. 괜찮으니 얼른 마저 이야기하라고 하니,
 “아, 이런 수가…… 온, 내 조상이 대체 신라 적 화랑이구랴!”
 하고 혼자 감개해서 못 견디는 모양이었다. 그건 또 어떻게 알

아냈냐고 한즉, 근일에 여러 가지 서적을 상고하던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라 하였다.

황 진사를 광화문통에서 만난 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나
 는 숙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총독부 앞에서 전차를 내
 려 필운동으로 들어가노라니 모르핀 중독 환자 치료소 옆에서
 자칫하면 모르고 지나칠 뻔하다가 그를 보게 되었다.

머리가 더부룩한 거지 아이 몇 놈과 아편 중독자 몇과 그
 밖에 중풍쟁이, 앓은뱅이, 수족 병신 들이 몇 둘러싼 가운데에
 한 두어 뺨 길이쫘 되는 무슨 과자 상자 같은 것을 거꾸로 얹
 어 놓고 그 위에 삐쩍 마른 두꺼비 한 마리씩과 그 옆의 똥그란
 양철통에 흙빛 연고 약을 넣어 두고 약 쓰는 법을 설명하는
 위인이 있다.

“두꺼비 기름, 두꺼비 기름, 예헴, 두꺼비 기름이올시다. 옷
 오른 데도 쓰고, 움 오른 데도 쓰고, 등창, 둔창, 화상, 동상,
 충치, 풍치, 이 앓는 데도 쓰고, 어린이 귀젓 앓는 데, 머리
 가 자꾸 헐어 들어가 하계아다마* 되랴는 데, 남녀노소, 어
 른, 애, 계집, 사내 할 것 없이, 서울내기, 시골뜨기, 물을 것
 없이, 그저 누구든지 험 데는 독물을 빼고, 살이 썩는 데는
 거구생신을 하고, 자, 깊이깊이 감춰 두면 반드시 한 번씩은
 찾게 되는 약! 첩첩이 싸서 깊이깊이 넣어 두면 언제든지
 한 번은 보배가 되는 약! 자아, 두꺼비 기름이올시다. 두꺼
 비 코에서 짠 두꺼비 기름, 자아, 그러면 이 두꺼비가 얼마
 나 무서운 신호가 있는가를 여러분의 두 눈에 보여 드릴 터
 이니까 단단히 보시오.”

그는 약물에다 흙빛 고약을 찍어 넣어서 저으며,
 “자아, 단단히 보시오, 우리 몸에 있는 썩은 피가 두꺼비 코
 끝만 들어가면 그만 이렇게 홍로일점설, 봄철의 눈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고, 약물 접시를 들어 여러 사람 앞에 한번 내두르고 나서
 기침을 한번 새로 하더니,

“여러분, 여기 계시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선생이올
 시다. 그런데 선생께서는 두 달 전부터 충치를 앓으셔서 병
 석에 누워 계시다가 이 약으로 말미암아 어저께 별례를 내
 고 오늘부터 이렇게 이곳까지 나와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고, 켈자*가 손으로 가리키는 바로 그 곁에는, 전날에 보던
 그 검정색 안경을 쓴 우리 황 진사가 점잖게 먼 산을 바라보
 고 앉아 있었다.

켈자는 다시 말을 이어,
 ㉤ “선생께서는 또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깊으실 뿐
 아니라 곱의 쓸개, 오리의 혀, 지렁이 오줌, 쥐의 똥, 고양이
 간 같은 걸로 훌륭한 약을 지어서 일만 가지 병마를 퇴치시
 킬 수도 있는, 말하자면 이인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어른이
 올시다!”

할 즈음에 순사가 왔다. 에워싸고 있던 거지, 아편쟁이, 수족
 병신 들은 각기 제 구석을 찾아 헤어졌다.

이 꼴을 보신 숙모님은 나에게 눈짓을 하시며 앞서가셨다.
 나도 숙모님 뒤를 쫓아 한참 오다 돌아다본즉, 아까 연설을 하
 던 작자는 빈 과자 상자에 마른 두꺼비와 고약 통을 담아 가
 슴에 안고, 황 진사는 점잖게 두 손을 두루마기 옆구리에 찌른
 채 순사를 따라 건너편 파출소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 김동리, 「화랑의 후예」 -

* 천량: 개인 살림살이의 재산.
 * 하계아다마: 대머리.
 * 켈자: ‘그’를 낮잡아 이르는 말.

31.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상 장면이 삽입되어 사건의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행동 묘사와 대화를 통해 인물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장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④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실제 공간의 실감 있는 묘사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32. <보기>는 수업 중 제시된 과제이다. 이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가문의 의식, 조상의 명예 등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시대착오적이며 허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인 ‘황 진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점을 중심으로 작품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말해 보자.

- ① 황 진사가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면서도 약장사의 조력자 노릇을 하는 것은, 그가 허위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황 진사가 과부 중매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 것은, 그가 조상의 명예에 합당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군.
- ③ 황 진사가 안경을 쓰고 점잖게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그가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관조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황 진사가 자신의 조상이 신라 적 화랑이었음을 감개하며 자랑하는 것은, 그가 가문을 중시하는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황 진사가 순사에게 끌려가면서도 점잖게 두 손을 두루마기 옆구리에 찌른 채 걸어가는 모습에서, 그가 양반의 체통을 중시하는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겠군.

3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황 진사는 숙모가 말한 규수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방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숙부가 권해 준 규수를 부인으로 맞을 수 없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기대와 다른 황 진사의 말을 접한 ‘나’의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황 진사가 가진 능력을 진술하게 제시하고 있다.

[34~3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해 가을에 천하의 선비들을 모아 과거 시험을 보였는데, 모여든 선비의 수가 8만 5천 8백 명에 이르렀다. 최치원도 과거에 참가했는데 장원을 차지했다. 그러자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 “최치원은 소국의 선비로서 으뜸 자리를 차지했으니 참으로 귀한 존재로다!”

그리고는 많은 돈을 상으로 내렸다. 이윽고 황제는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을 대전(大殿) 앞에 불러 모은 뒤 시를 짓게 했다. 그런데 이때 문득 한 쌍의 용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최치원이 지은 시를 물고 하늘로 올라갔다. 황제가 그 소식을 듣고는 최치원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경은 어떤 시를 지었기에 하늘에서 그 시를 가져간 거요?”

황제는 최치원에게 방금 지은 시를 읊어 보게 했다. 최치원이 시를 읊자 황제가 찬탄했다.

“이렇게 지었으니 하늘이 가져갈밖에!”

마침내 최치원을 문신후에 봉했다.

몇 년 뒤 황소(黃巢)*가 3만 군사를 모아 ㉠지방의 여러 고을을 거침없이 함락시켰는데, 조정에서는 몇 년 동안이나 토벌에 나섰지만 이길 수 없었다. 마침내 황제가 최치원을 대장으로 삼아 황소의 반란군을 토벌하게 했다. 최치원은 맞서 싸우지 않고 적진에 격문 한 장을 보냈을 뿐이었는데 반란군이 모두 투항했다. 이에 최치원은 반란군의 두목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황제가 매우 기뻐하며 영지(領地)를 더 하사하는 한편 많은 황금을 내리니, 황제의 총애가 비할 데가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대신들이 최치원을 시기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모함하며 헐뜯는 말을 했다.

“최치원은 중국이 비록 크지만 소국만 못하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황제가 진노하여 최치원을 남쪽 바다의 섬으로 귀양 보내고 음식을 일절 주지 말도록 했다. 하지만 최치원은 예전에 노파에게서 받았던, 간장에 적신 숨을 밤마다 꺼내 빨아 먹으며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황제는 한 달 뒤 최치원이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사자(使者)를 섬으로 보냈다. 사자가 “최치원!”하고 부르자, 최치원은 그 의도를 짐작하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자는 돌아가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에 여러 대신들이 비웃으며 말했다.

“최치원은 소국의 천한 놈이면서 중국에 와 온갖 방법으로 황제를 속였지. 그러다 요행으로 높은 벼슬을 얻고는 세력을 믿고 교만하게 굴더니만 지금은 도리어 그제 재앙이 돼서 굶어 죽게 생겼군.”

이때 마침 베트남 사신이 공물(貢物)을 바치러 당나라에 오다가 최치원이 유배가 있는 섬을 지나게 되었다. 홀연 섬 위에 한 선비가 승려들과 함께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곁에는 선녀 수십 명이 늘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베트남 사신이 배를 멈추고 한참을 보고 있다가 그 선비에게 시 한 수를 지어달라고 청하자 선비가 시를 지어 주었다. 베트남 사신은 당나라에 이르러 황제에게 그 시를 바쳤다. 황제가 시를 보고 말했다.

“누가 지은 시인가?”

사신이 대답했다.

“제가 남쪽 바다의 섬을 지나는데, 어떤 선비가 승려들과 함

게 앉아 책을 읽고 있고 선녀 수십 명이 그 곁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비에게 시를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신하들을 불러 그 시를 보여 주고 이렇게 말했다.
“시에 담긴 뜻으로 보건대 최치원이 지은 듯하다만, 석 달 동안이나 음식을 끊고 어찌 살아 있을 리가 있겠느냐? 분명 최치원의 혼령이 지은 시일 것이다.”

이에 다시 사자를 섬으로 보냈다. 사자가 또 “최치원!”하고 부르자 최치원이 목청을 높여 말했다.
“너는 뭐 하는 놈이기에 건방지게 매번 내 이름을 부르는 게냐?”

그렇게 말하고는 꾸짖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었다. 사자가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다.
“최치원은 죽지 않았고, 목청을 높여 대답했습니다.”

황제가 몹시 놀라 말했다.
“하늘이 돕는 사람이로다!”

황제가 다시 사자에게 명령했다.
“최치원을 불러들여라.”

사자는 황제의 명에 따라 최치원을 낙양으로 데려왔다. 황제가 최치원을 자신의 방으로 부르더니 이렇게 물었다.
“경은 여러 달이나 밖에 있었는데, 어찌하여 한 번도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던고?”

황제가 또 물었다.
“하늘 아래 황제의 땅 아닌 곳이 없고,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황제의 신하 아닌 이가 없다.’는 말이 있지. 이 말대로라면, 경이 비록 신라 사람이긴 하나 신라 또한 나의 땅이요, 신라의 왕 또한 나의 신하다. 그렇다면 경이 나의 사자를 꾸짖은 이유는 무엇인가?”

㉠ 최치원이 허공에 손으로 일(一)자를 긋더니 필쩍 뛰어올라 자신이 쓴 글자 위에 앉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도 폐하의 땅입니까?”

황제가 놀란 나머지 의자에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다. 최치원이 황제에게 말했다.
“폐하께서 소인배들의 모함하는 말을 듣고 훌륭한 신하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제 나는 우리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 황소: 중국 당나라 말기의 군웅 가운데 한 사람. 한때 당나라의 수도를 점령하여 스스로 황제라 일컬음.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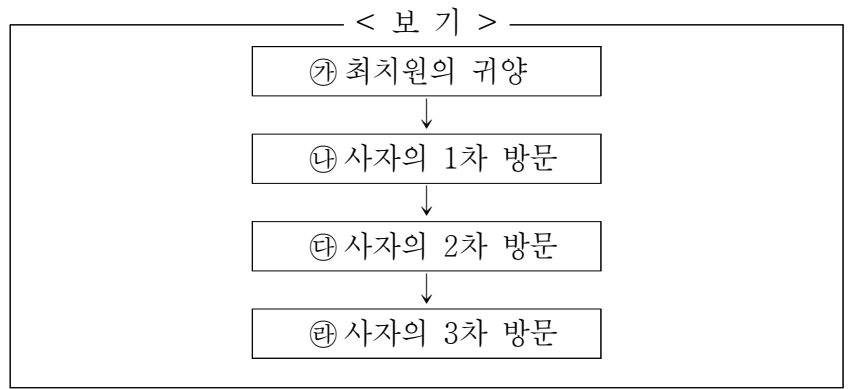
< 보 기 >

「최고운전」은 중화사상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주인공을 억압하는 부당한 황포에 맞서는 방식을 통해 민족적 우월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영웅 소설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의 무용(武勇)을 부각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리 문재(文才)를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이 당나라에서 빈공과*에 급제하고, ‘토황소격문’을 지어 반란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역사적 사실을 허구적 사건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극적 흥미를 높이고 있다.

* 빈공과: 중국 당나라 때 외국인에게 보게 하던 과거.

- ① 황제가 의자에서 내려와 최치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는 것은 민족적 우월성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베트남 사신이 최치원에게 시를 지어 달라고 청하는 것은 주변국들이 중화사상에 회의를 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최치원이 과거에 급제하고 반란군 토벌에 공을 세운 것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한 쌍의 용이 최치원이 지은 시를 가지고 승천하는 것은 주인공의 문재를 부각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여러 대신들이 최치원을 시기하여 모함하는 것은 부당한 황포로 볼 수 있겠군.

35. 윗글을 읽고 <보기>의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황제는 ㉣를 통해 최치원을 귀양지에서 죽이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 ② 황제는 최치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와 ㉢를 지시했다.
- ③ 사자는 ㉡와 ㉢의 결과를 보고할 때 모두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최치원은 ㉢와 달리 ㉡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거짓으로 꾸며 사자에게 대응했다.
- ⑤ 황제는 최치원을 낙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를 지시했다.

36. ㉠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파죽지세(破竹之勢)
- ② 내우외환(內憂外患)
- ③ 좌충우돌(左衝右突)
- ④ 난형난제(難兄難弟)
- ⑤ 권토중래(捲土重來)

3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제의 질책을 피하며 타협점을 찾고 있다.
- ② 천상계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신이 미래에 황제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④ 신라의 국력이 당나라보다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황제가 내세우는 권위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38~4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읍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라
오오 불설위*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읍아가며 슬피 읍니다.

- 김소월, 「접동새」 -

- *아우래비: 아홉 오라비.
- *불설위: '몹시 서러워'의 방언.
- *오랩동생: '오라비'의 방언. 남동생.

(나)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왓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텃텃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왓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 배한봉, 「우포늪 왓새」 -

- *왓새: 왜가리.
- *동편제: 호남의 동쪽 지역에서 발달한 판소리의 한 유파.

3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법을 사용하여 관념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③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시적 공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⑤ 화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대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계모에게 박대 받던 처녀가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고, 밤이면 오라비들을 찾아와 울었다는 '접동새 설화'를 수용하여 현대시의 형식으로 변용하고 재창조한 것이다. 억울한 죽음의 사연을 담고 있는 설화를 통해 당시 나라를 잃고 슬픔에 빠진 우리 민족의 한을 전통적 율격으로 노래하고 있다.

- ① '접동/접동/아우래비 접동'은 설화와 관련한 접동새 율음소리를 리듬감 있는 시행의 배열로 변용한 것이다.
- ② '누나는/진두강 앞마을에/와서 읍니다.'는 화자가 설화를 수용하여 '접동새'와 '누나'를 동일시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③ 접동새 설화의 '누나'는 '우리 누나'로 변주되며 민족이 지닌 슬픔의 정서로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 ④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와 같은 표현은 전통적 율격으로 우리 민족이 지닌 정서를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 ⑤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에 잠들지 못한 '오랩동생'의 태도는 민족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고뇌와 연결되는 것이다.

40.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시골장이나 떠돌던/소리꾼'의 삶을 떠올리며 그가 추구했던 '한 대목 절창'을 우포늪에 퍼지는 '왓새 울음' 소리와 동일시하고 있군.
- ②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가 '꿈속에서도' 찾던 득음의 경지를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이 퍼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③ '혈혈단신'으로 슬픔을 지닌 사내가 '필생 동안' 찾아 헤맨 소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는 것이겠군.
- ④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왓새들이 '일제히 깃을 치며' 날아가는 것은, 득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소리꾼의 회한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⑤ '완창 한 판 잘' 끝낸 '왓새들'의 울음은 '소리꾼 영혼'이 담긴 예술적 경지와 통하는 것으로, '우포늪 꽃잔치'를 무르익게 하는 생명력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겠군.

[41 ~ 4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두터비 과리를 물고 두엄 우희 치다라 안자
 것년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鵲)*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즉
 하여 풀덕 뛰여 내닷다가 두엄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날넌 널식만정 에혈*질 번 하래라
 -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

(나)

모침(茅檐)의 달이 진 제 첫 잠을 얼핏 깨어
 반벽 잔등(半壁殘燈)을 의지 삼아 누었으니
 일야(一夜) 매화가 발하니 님이신가 하노라
 <제1수>

아마도 이 벗님이 풍운(風韻)*이 그지없다
 옥골 빙혼(玉骨氷魂)*이 냉담도 하는구나
 풍편(風便)*의 그윽한 향기는 세한 불개(歲寒不改)* 하구나
 <제2수>

천기(天機)도 묘할시고 네 먼저 춘휘(春暉)*로다
 한 가지 꺾어 내어 이 소식 전(傳)차 하니
 님께서 너를 보시고 반기실까 하노라
 <제3수>

님이 너를 보고 반기실까 아니실까
 기년(幾年)* 화류(花柳)의 취한 잠 못 깨었는가
 두어라 다 각각 정이니 나와 늙자 하노라
 <제4수>
 - 권섭, 「매화」 -

- * 백송골: 송골매.
- * 에혈: 어혈. 타박상 등으로 피부에 피가 맺힌 것.
- * 풍운: 풍류와 운치.
- * 옥골 빙혼: 매화의 별칭. '옥골'은 깨끗한 용모를, '빙혼'은 얼음과 같이 맑고 깨끗한 넋을 의미함.
- * 풍편: 바람결.
- * 세한 불개: 추운 계절에도 바뀌지 않음.
- * 춘휘: 봄의 햇볕.
- * 기년: 몇 해.

41.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관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42.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가)의 경우 화자가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견해와 시
 상 전개 과정에서 원래 시적 대상이던 '두터비'가 화
 자로 바뀐다는 견해가 양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의 중장부터 화자가 '두터비'로 바뀐다고 가정하
 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① 중장에서 '백송골'과 '두터비' 사이의 우열 관계가 역전될 것
 입니다.
- ② 중장에서 '백송골'과 '두터비' 사이의 갈등의 원인을 다각적으
 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③ 중장은 '두터비'가 자신이 체험한 상황과 그에 대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④ 중장에서 부정적인 상황에 맞서려는 '두터비'의 의지가 부각
 될 것입니다.
- ⑤ 중장은 '두터비'가 과거의 행적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독백
 이 될 것입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권섭은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고결한 정신적 경지를 추구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겼는데, 자연물 중에서 매화의 속성
 이 고결하다고 생각해 매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여러 편
 의 시가를 창작했다. (나)는 이러한 작품들 중의 하나로 알
 려져 있는데, 매화를 선비의 지조에 빗대어 예찬하는 태도,
 매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흥취를 느끼는 태도 등이 나
 타나 있다.

- ① '일야'는 화자가 매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적 배경으
 로 볼 수 있군.
- ② '풍운이 그지없다'는 매화를 바라보며 흥취를 느끼는 화자의
 태도로 볼 수 있군.
- ③ '세한 불개'는 화자가 계절적 배경을 통해 매화의 고결한 속
 성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한 가지 꺾어 내어'는 선비의 지조를 인정하지 않는 시류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나와 늙자 하노라'는 매화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화자가 바
 라는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군.

[44 ~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1장 서울 적십자 병원 - 죽음의 푸가

무대는 뒷면이 온통 흰색이고 배우들은 병원 로비 나무 의자에 자유롭게 앉아 있다. 배우 1(신문 기자 역)이 송고를 하고 있다.

배우 1: 신 형, 기사 하나 받아 줘. 응, 시작할까? 제목, 이중섭 화백 별세, 본문, 한국 화단의 야수파로 알려진 청년 예술가 이중섭 화백은 극도의 가난한, 응, 그래, 극도의 생활고와 병마에 굴복, 9월 6일, 서울 적십자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중섭 화백의 장의식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시인, 화가들에 의하여 준비되고 있으나 가족에게는 연락할 길이 없어 10일 상오 현재 출상을 못하고 있다. 연락장소는 다음과 같다.....

배경 음악이 흐르면서, 배우 2(시인 역)의 시 낭송이 시작된다.

배우 2: 내 마음 척박한 황지에
무슨 나뭇가 애벌레인가 한 마리 살고 있었지요
그놈은 한사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그저 세상이 죄스럽다고
그저 한번 화사하게 날고 싶다고
거부하는 몸짓으로
살다가
1956년 9월 6일 11시 40분
감염증으로 입원 가료 중 사망
이중섭 40세.

이 시가 낭송되는 동안 로비의 배우들은 문상객, 그리고 이중섭이 사랑했던 오브제들-노루, 개, 개구리, 뱀, 쥐, 학, 나비, 게, 천도복숭아, 목련, 호박꽃, 소-로 바뀐다.

배우 2: 시체라도 봅시다.
영안실 인부: 볼 필요 없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음악 팡 울리고 흰 벽면에서 문이 열린다. 이중섭이 나타난다. 그의 주변으로 그의 분신(分身)들-또는 그의 그림의 주인공들이 모여든다.

배우들: 중섭이!

그는 뚜벅뚜벅 걸어 나간다. 그의 분신(分身)들이 그를 따라가려 한다. 중섭 소리친다.

중섭: 따라오지 말어, 나 혼자 가!

분신들이 굳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중섭 다시 움직여 사라져간다. 음악이 고조되고 분신들은 자기들의 춤을 춘다. 춤은 길지 않다.

제2장 이중섭과 소

무대는 흰 벽면이 녹색 들판으로 바뀌면서 이중섭의 장례 행렬이 퇴장한다. 무대에는 소만 덩그러니 남았다. 소, 눈망을 꿈벅거리다가 팔자 편하게 주저앉는다. 중섭이 스케치북을 들고 살금살금 걸어 나온다.

소, 이중섭을 문득 보고는 ‘음메헤.....’ 한 번 울고 뒷걸음을 친다.

중섭: 팬찮아, 임마, 그대로 가만있어. (마주 앉으며) 자, 자..... 앉아, 앉으라구. 우리는 인간적으로 만나자, 응, 인간적으로.

소: (체, 나는 소야. 내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앉아?)

중섭: 그래, 그럼 소처럼, 그래 가장 소답게 여기 앉아 봐라.

소, 양전해진다. 그러나 약간 쑥스럽다. 꼬리를 설레설레 흔든다.

중섭: 그래 양전하게.....

소: (뭐하려고 그러냐?)

중섭: 응, 널 이 화폭에 담고 싶어.

소: (그럼, 잘 그려 줘. 가장 소답게 알았어? 자.)

소, 멧을 내며 앉는다.

중섭: 약간 옆으로 삐딱하게 몸을 돌려 봐.

소, 중섭의 말에 따른다. 중섭, 스케치를 시작한다. 임 교사, 무대 뒤에서 빙그레 미소를 머금고 등장, 중섭 뒤에 선다.

임 교사: 피나는 관찰을! 철저히 관찰하고, 수없이 반복해서 에스키스*를 그려야 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에스키스를. (사이) 중섭이, 그림은 왜 그리지?

중섭: 세상을 아름답게 느끼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난 자유스러워져요. 누구도 내 그림을 간섭할 수 없어요.

임 교사: 맞아, 우린 자유스럽지 못해.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다. 이 두메산골 오두막도 내 땅, 내 조국이 틀림없지만 우린 주인이 아니야. 미국 땅 시카고에서 그림 공부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암울하지만은 않았지.

중섭: 선생님, 우리는 어떡허지요? 우리 오산 학교 학생들은 지금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란 생각들을 하구 있어요.

임 교사: 너의 독립운동은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 속에서 아름다운 조국을 찾아라.

중섭: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림 속에 우리의 꿈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애꿎은 소나 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임 교사: 그래, 소가 너의 꿈이고 고향이고 조국이 될 수 있잖나. 화가에게는 상상력이 전부야. 문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이지. 넌 그 기술을 익혀야 돼. 넌 동경으로 가야 돼.

- 김의경, 「길 떠나는 가족」 -

* 에스키스: 밑그림.

4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 교사와 중섭의 대화에서 중섭의 예술관이 드러나고 있다.
- ② 배우 1은 이중섭의 죽음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 ③ 배우 2는 이중섭의 삶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④ 임 교사는 중섭과 달리 현실에서 동떨어진 예술을 비판하고 있다.
- ⑤ 영안실 인부는 시신의 상태를 이유로 배우 2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을 공연하기 위해 연출가가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이 극은 다양한 연극적 장치들을 활용하고 있다. 무대 배경으로 영상을 활용하여 무대 장치를 최소화했고, 효과적인 음향과 배경 음악을 통해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역순행적으로 배열된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매개물을 제시하고 있다. 소, 물고기, 새 등 이중섭 그림의 소재를 연극적인 오브제*로 제작하여 극적 상황을 회화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이들이 등장인물과 어우러지면서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오브제: 연극에서 소품이나 도구 또는 사람 등을 물건으로 변화시켜 무대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

- ① ‘소’를 그리는 장면은 이중섭이 ‘소’와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연출하여 현실에 무관심한 채 자연과 교감하려는 이중섭의 태도를 드러내야겠어.
- ② 이중섭이 죽은 상황을 나타내는 장면에서는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주요 소재들을 오브제로 제작하여 인상적으로 제시해야겠어.
- ③ 제2장으로 바뀔 때에는 ‘녹색 들판’을 나타내는 영상으로 무대 배경을 교체하여 극 중 공간의 변화를 보여 줘야겠어.
- ④ ‘배우 2’가 시를 낭송하는 장면에서는 시의 내용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준비하여 극의 분위기를 조성해야겠어.
- ⑤ 장례 행렬이 퇴장할 때 ‘소’를 무대에 남겨 두어 이전 장면과 다음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계시켜야겠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